

생명의 땅,  
청년이 돌아오는 전남

# 전남 167호 농업정보

주간 2018. 1. 8. ~ 1. 14.

「전남도, 전국 최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」



## 목 차 및 요약

### 1 주간 기상전망 ..... 5

- ▶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9~10일에 눈이 오겠고,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
- ▶ 기온은 평년(최저기온: -4~0도, 최고기온: 5~7도)과 전반에는 비슷하겠으나, 후반에는 낮겠음
- ▶ 강수량은 평년(1~2mm)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음

### 2 주간농사정보 ..... 8

- ▶ 벼·밭작물
- ▶ 채소·과수

###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..... 10

- ▶ 곡성군, 미실란 2018년 쌀 가공품 해외 수출 길 확대
- ▶ 보성군, 2017년 농특산물 28억원 수출

###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..... 13

- ▶ 품목별 도소매 정보

## 5 저비용·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..... 15

- ▶ 전남농업기술원, 잎나물용 갯기름나물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
- ▶ 전남농업기술원, 전국 최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
- ▶ 체리 가지치기 교육 6일부터 시작... 전국 6개 권역 순회
- ▶ 경남농업기술원, 애플망고 적정 생육 적온관리 밝혀
- ▶ 겨울철 시설 토마토 병 발생 주의하세요
- ▶ 가금농장 출입 전 소독만 잘해도 세균 크게 억제

## 6 정책 동향 ..... 24

- ▶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
- ▶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·농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

##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..... 26

- ▶ 순천시, 매실전통주 하늘담 개발 출시
- ▶ 광양시, 토양검정·유용미생물 공급 서비스 농가로부터 큰 호응
- ▶ 곡성군, 석곡농협 백세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선정
- ▶ 보성군, 2018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
- ▶ 고흥군, 2018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





## 8 해외 농업정보 ..... 31

- ▶ 멕시코, 농·축산업 시장 현황
- ▶ 식품시장에서의 친환경 포장지 사용 확대
- ▶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('18. 1. 8. 시카고 선물거래소)

##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..... 35

- ▶ 봄 파종용 보리·밀 종자 신청하세요
- ▶ 논 타작물 재배 2월 말까지 신청하세요
- ▶ 2018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선발
- ▶ 청탁금지법 위반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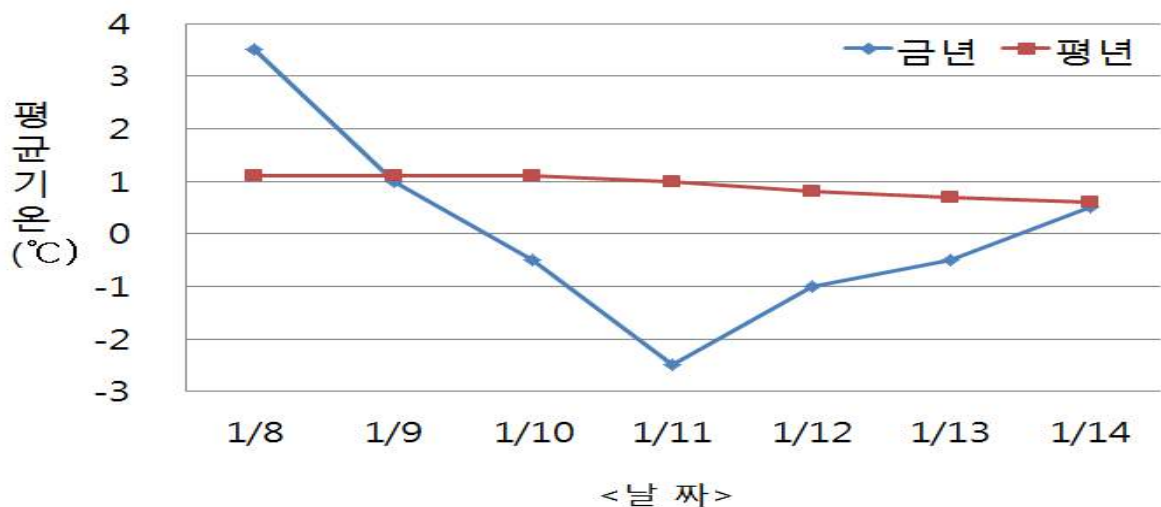
# 1

## 주간 기상 전망



### ■ 기상청 중기예보(1월 8일 ~ 1월 14일, 광주 기준)

- 평균기온 : 0.1℃ (평년대비 0.8℃ 낮음)
- 최고기온 : 3.1℃ (평년대비 2.2℃ 낮음)
- 최저기온 : -3.0℃ (평년대비 0.2℃ 낮음)
- 강 수 량 : 1.2m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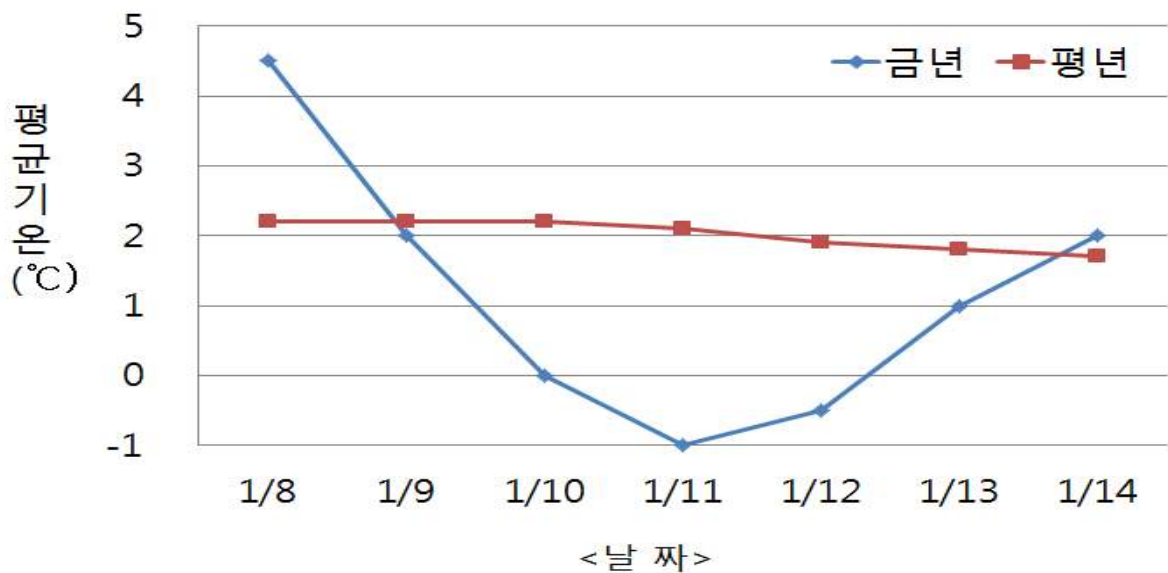
일 별 (월 · 일)	평균기온(℃)			최고기온(℃)			최저기온(℃)			강수량(mm)
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
평 균	0.1	0.9	-0.8	3.1	5.3	-2.2	-3.0	-2.8	-0.2	1.2
1. 8.(월)	3.5	1.1	2.4	5.0	5.6	-0.6	2.0	-2.7	4.7	1.1
1. 9.(화)	1.0	1.1	-0.1	4.0	5.6	-1.6	-2.0	-2.6	0.6	1.4
1. 10.(수)	-0.5	1.1	-1.6	2.0	5.6	-3.6	-3.0	-2.7	-0.3	1.1
1. 11.(목)	-2.5	1.0	-3.5	1.0	5.3	-4.3	-6.0	-2.6	-3.4	1.1
1. 12.(금)	-1.0	0.8	-1.8	3.0	5.1	-2.1	-5.0	-2.8	-2.2	1.1
1. 13.(토)	-0.5	0.7	-1.2	3.0	5.1	-2.1	-4.0	-3.0	-1.0	1.4
1. 14.(일)	0.5	0.6	-0.1	4.0	5.0	-1.0	-3.0	-3.1	0.1	1.4

\*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, 평년은 1981-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



## ■ 기상청 중기예보(1월 8일~1월 14일, 목포 기준)

- 평균기온 : 1.1℃ (평년대비 0.5℃ 낮음)
- 최고기온 : 3.6℃ (평년대비 2.7℃ 낮음)
- 최저기온 : -1.3℃ (평년대비 0.1℃ 낮음)
- 강 수 량 : 1.1m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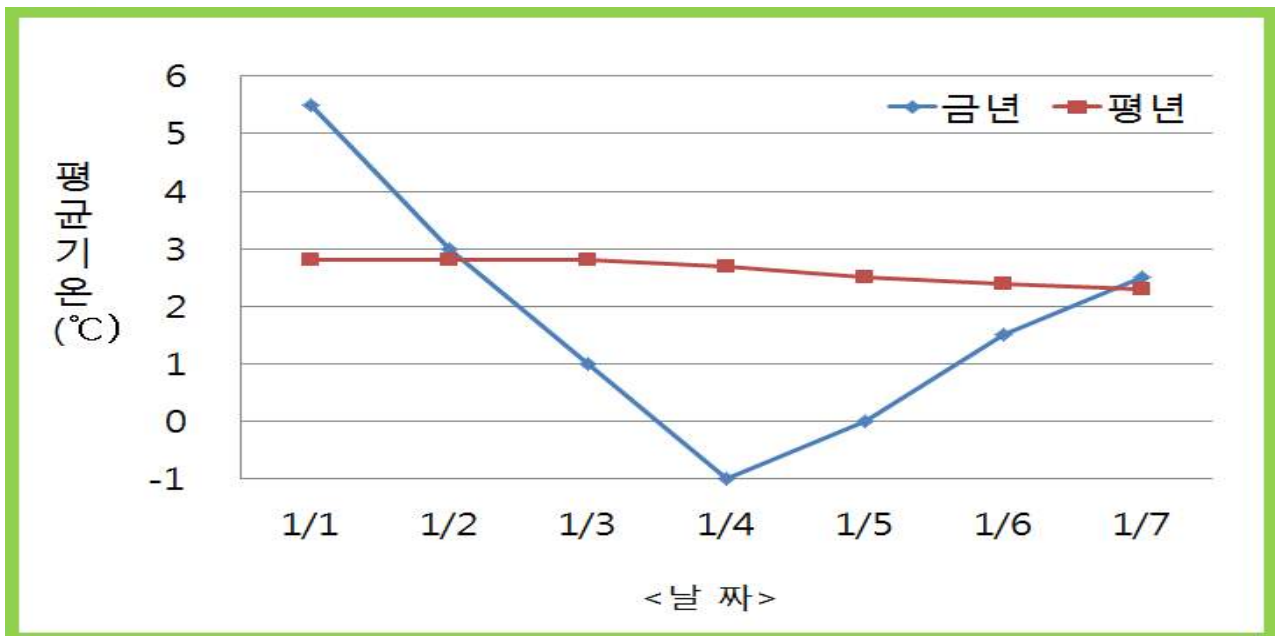


일 별 (월 · 일)	평균기온(°C)			최고기온(°C)			최저기온(°C)			강수량(mm)
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평년
평 균	1.1	2.0	-0.5	3.6	6.3	-2.7	-1.3	-1.2	-0.1	1.1
1. 8.(월)	4.5	2.2	5.0	6.0	6.5	-0.5	3.0	-1.1	4.1	1.1
1. 9.(화)	2.0	2.2	-0.2	3.0	6.6	-3.6	1.0	-1.0	2.0	1.3
1. 10.(수)	0.0	2.2	-2.2	2.0	6.5	-4.5	-2.0	-1.1	-0.9	1.1
1. 11.(목)	-1.0	2.1	-3.1	2.0	6.4	-4.4	-4.0	-1.1	-2.9	1.1
1. 12.(금)	-0.5	1.9	-2.4	3.0	6.1	-3.1	-4.0	-1.2	-2.8	1.1
1. 13.(토)	1.0	1.8	-0.8	4.0	6.1	-2.1	-2.0	-1.4	-0.6	1.2
1. 14.(일)	2.0	1.7	0.3	5.0	5.9	-0.9	-1.0	-1.4	0.4	1.1

\*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, 평년은 1981-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

## ■ 기상청 중기예보(1월 8일 ~ 1월 14일, 여수 기준)

- 평균기온 : 1.8℃ (평년대비 0.8℃ 낮음)
- 최고기온 : 4.6℃ (평년대비 1.7℃ 낮음)
- 최저기온 : -1.0℃ (평년대비 0.5℃ 낮음)
- 강 수 량 : 0.8mm



일 별 (월 · 일)	평균기온(℃)			최고기온(℃)			최저기온(℃)			강수량(mm)
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금년 (a)	평년 (b)	차이 (a-b)	
평 균	1.8	2.6	-0.8	4.6	6.3	-1.7	-1.0	-0.5	-0.5	0.8
1. 8.(월)	5.5	2.8	2.7	7.0	6.6	0.4	4.0	-0.3	4.3	0.9
1. 9.(화)	3.0	2.8	0.2	5.0	6.6	-1.6	1.0	-0.3	1.3	0.9
1. 10.(수)	1.0	2.8	-1.8	3.0	6.6	-3.6	-1.0	-0.3	-0.7	0.5
1. 11.(목)	-1.0	2.7	-3.7	2.0	6.3	-4.3	-4.0	-0.3	-3.7	0.5
1. 12.(금)	0.0	2.5	-2.5	4.0	6.1	-2.1	-4.0	-0.5	-3.5	0.7
1. 13.(토)	1.5	2.4	-0.9	5.0	6.1	-1.1	-2.0	-0.7	-1.3	0.9
1. 14.(일)	2.5	2.3	0.2	6.0	5.9	0.1	-1.0	-0.8	-0.2	0.9

\*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, 평년은 1981-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





## 2

## 주간농사정보



### 벼

#### □ 벼 씨 준비

- 보급종은 품종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을 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, 읍면 농민상담소(읍면 상담소가 없을 경우 읍면 사무소)에 희망 품종과 물량을 신청함
- 보급종 추가 신청기간 : '18. 1. 2.~1. 31., 공급기간 : '18. 1. 10.~3. 31.

#### □ 쌀 가공식품 구매 패턴

-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식품 확대와 연중 소비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재배가 요구되고, 제품 개발 및 다양화가 요구됨
- 1인·캠핑족·노인 가구 증가로 즉석조리 쌀밥(즉석·냉동·컵밥 등)이나 각종 덮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
- 최근 계절성 없이 연중 소비 추세이며 밀빵을 대체하는 식사 대용 간편식으로 적합함

### 발작물

#### □ 감자 시설재배

- 파종할 때 알맞은 감자썩 길이 3~5cm, 남부지방 파종적기는 12월 상순~1월 중순이며 파종 후 투명비닐로 피복

#### □ 종자준비 및 사전준비

-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방법에 따라 우량종자를 준비토록 하며 약제 및 전용비료 등 각종 자재는 미리 준비함
- 봄감자 보급종 종자 공급기간 : '18. 2. 15.~4. 10.





## ■ 채 소

### □ 시설채소

- 겨울철 작물별 적정습도 유지로 생육관리 및 병 예방
- 작물별로 생육시기별 최저 한계 온도를 확보하여 동해예방
- 하우스 동 사이는 1.5m 이상 확보하고 제설장비 준비

### □ 봄배추 육묘

- 모기르기를 할 때 상토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는 초기 생육에 필요한 비료량이 첨가되어 있어 물관리만으로 충분
- 모기르기를 하는 동안 낮 온도가 25℃ 이상 되지 않도록 환경 관리 발생

### □ 고추 품종 선택

- 단일 품종보다는 두 개 정도의 품종을 선택하며 재배지의 환경 및 관리 조건, 소비자의 기호성 등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

## ■ 과 수

### □ 영농계획 수립

- 소득분석을 통한 경영 개선부분 검토 및 2018년 영농계획 수립
-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(재배·저장·유통 분야 등)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에 노력

### □ 과원관리

- 낙엽,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되므로 휴면기에 뒤집어 주거나 태워 병해충의 밀도를 낮춰 주어야 함
- 관수시설은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의 물을 완전히 빼주고 작업도구는 한곳에 모아 둬

\* 출처 : 농촌진흥청



## 3

##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



### ■ 곡성군, 미실란 2018년 쌀 가공품 해외 수출 길 확대

- 곡성군(군수 유근기)과 미실란(이동현 대표)은 지난해 식량작물 수출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쌀을 이용한 가공품(유기농 발아현미·미숫가루) 1.5톤을 미국에 첫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.
- (주)미실란은 올해엔 유기농 발아현미 제품, 미숫가루 등을 개발해 백화점,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, 자체 유통망 개척을 통해 쌀가공 회사와 협약을 맺는 등 SNS를 통한 국내 판매 비중도 점차 넓혀갈 예정이며, 미국 수출증대는 물론, 중국·싱가포르 등 해외 수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- 일찍이 발아현미 가공을 시작하여 유기농 미숫가루·발아오색미·떡국 등 쌀 가공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어 쌀 가공분야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있다.
- 더불어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산 고품질 식량작물을 이용한 수출용 가루식품 개발연구를 위해서 2016년부터 2년 동안 미실란, 농촌진흥청, 전남대학교, 분당제생병원이 참여하여 발아현미·미숫가루·이유식 등 쌀 가공품을 이용한 임상실험과 수출용 가루식품 연구개발 중이다.
- 군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보전과 수급안정화를 위해 50ha 규모로 식량작물 수출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였다.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여 원료곡을 확보했다.



-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시범단지에 삼광벼·유색미·백옥찰벼를 재배하여 생산된 쌀을 이용하여 쌀가루·빵·발아현미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.
- 한편 농촌진흥청, 미실란,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쌀가루 전용 품종을 선별하기 위해 시범단지 내에 품종비교 시험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쌀 가공용 벼 품종을 선별과 지역적응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34종 벼 품종을 손모내기를 하여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친환경에 적합한지 시험한다.
- (주)미실란은 삼광벼를 이용한 유기농 발아현미·미숫가루 등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 해오고 있다. 매년 쌀가루용 벼 품종을 찾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몇 가지 품종을 비롯한 여러 종류를 심어 비교해 볼 예정이다.
- 또한, 쌀 가공품 판매 확대를 위해 소비자, 농촌체험단, 쌀 가공품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들판음악회를 매년 5월과 10월에 진행하고 있다.
- 행사진행은 지역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와 참여하는 프리마켓방식으로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했고, 음악회 공연은 지인, 소비자로 알게 된 참여자 등 온전히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.
- 수출은 가공업체 (주)미실란,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, 유통관련 기관인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꽃피는 아침마을 등과 협력하여 쌀을 이용한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.

\* 출처 : 곡성군





## ■ 보성군, 2017년 농특산물 28억원 수출

- 참다래 · 녹차 · 단호박 등 952톤 수출 실적 거둬... -
- 보성군은 지난해 미국·일본·중국·동남아 등에 우수 농특산물 28억원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.
- 참다래·녹차·단호박 등 농특산물 총 952톤의 물량을 수출하는 실적을 거뒀으며, 참다래는 미국·일본·홍콩 등에 12억원을 수출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
- 별교꼬막 통조림은 미국에 7억원, 녹차와 홍차 등 차 제품은 미국·중국 등에 2억원을 수출했다.
- 또한, 북부지역에서 생산한 단호박은 일본에 4억원을 수출해 효자 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, 기타 잡곡, 채소, 가공식품 등은 3억원의 실적을 냈다.
- 군은 해외 진출을 위한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품질관리를 시작으로 바이어를 통한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을 추진했으며,
- 해외 박람회에서 전시, 홍보 등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한 것은 물론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물 제작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.
- 군은 올해에도 지난해 수출 목표액 20억원을 초과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.
- 또한, 각종 해외 박람회 참가로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수출 대상국을 넓혀가는 것은 물론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.

\* 출처 : 보성군

## 4

##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


☐ 품목별 도소매 정보

(2018. 1. 8. 기준/단위 : 원)

부류	품 목	전국 평균 도매가격(상품기준)					등 락 률(%)	
		판매 단위	당일 (1/8)	1개월전	1년전	일평년	전년 대비	평년 대비
식 작 량 물	쌀(일반계)	20kg	39,500	38,960	32,400	40,400	↑ 21.9	↓ 2.2
	콩(백태)	35kg	164,000	163,000	178,050	160,937	↓ 7.9	↑ 1.9
	고구마(밤)	10kg	31,600	27,720	25,800	23,640	↑ 22.5	↑ 33.7
	감자(수미)	20kg	50,400	46,560	33,250	26,643	↑ 51.6	↑ 89.2
채 소 류	배추(월동)	10kg	7,000	-	9,500	7,920	↓ 26.3	↓ 11.6
	양배추	8kg	8,200	6,016	11,000	6,336	↓ 25.5	↑ 29.4
	오이(다다기계통)	100개	64,333	47,600	84,667	76,622	↓ 24.0	↓ 16.0
	애호박	20개	26,200	15,080	26,950	26,290	↓ 2.8	↓ 0.3
	건고추(화건)	60kg	1,180,000	1,278,000	570,000	762,533	↑ 107.0	↑ 54.7
	풋고추	10kg	42,200	29,120	57,200	58,813	↓ 26.2	↓ 28.2
	마늘(깐마늘, 남도)	20kg	134,000	-	-	-	-	-
	양파	20kg	23,800	24,600	23,900	22,500	↓ 0.4	↑ 5.8
	당근	20kg	24,000	25,840	76,300	40,367	↓ 68.5	↓ 40.5
	대파	1kg	1,780	1,756	2,485	1,919	↓ 28.4	↓ 7.2
	파프리카	5kg	19,600	20,480	29,600	30,773	↓ 33.8	↓ 36.3
	딸기	2kg	24,600	24,960	25,800	26,630	↓ 4.7	↓ 7.6
	토마토	10kg	21,000	23,360	37,500	30,227	↓ 44.0	↓ 30.5
	방울토마토	5kg	16,400	17,608	29,000	22,160	↓ 43.4	↓ 26.0
	사과(후지)	10kg	35,200	33,680	39,600	40,933	↓ 11.1	↓ 14.0
과 일 류	배(신고)	15kg	34,400	33,400	39,800	42,267	↓ 13.6	↓ 18.6
	감귤(노지)	5kg	14,800	-	-	-	-	-
	단감	10kg	31,000	29,800	24,100	22,976	↑ 28.6	↑ 34.9

부류	품 목	전국 평균 도매가격(상품기준)					등 락 률(%)	
		판매 단위	당일 (1/8)	1개월전	1년전	일평년	전년 대비	평년 대비
특용 작물	참깨(백색)	30kg	499,000	498,800	523,000	528,667	↓ 4.6	↓ 5.6
	느타리버섯	2kg	12,800	13,000	13,400	11,900	↓ 4.5	↑ 7.6
	새송이버섯	2kg	8,200	7,800	8,850	8,500	↓ 7.3	↓ 3.5
축 산 물 (소매가)	쇠고기(한우등심)	100g	7,951	8,274	7,933	6,905	↑ 0.2	↑ 15.1
	돼지고기(삼겹살)	100g	1,858	2,017	1,889	1,765	↓ 1.6	↑ 5.3
	닭고기	1kg	4,823	5,152	5,065	5,552	↓ 4.8	↓ 13.1
	계란(특란)	30개	5,417	5,724	9,153	5,741	↓ 40.8	↓ 5.6
	우유	1리터	2,518	2,520	2,528	2,530	↓ 0.4	↓ 0.5

※ 1개월전,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

평년은 5년간(금년 제외)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

\* 자료 출처 : aT KAMIS(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)

## □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

(2018. 1. 8. 기준)

구 분		금주가격	전주가격	1년전	등 락 률(%)	
					전주 대비	전년 대비
한 우 (600kg)	암	5,592 천원	5,671 천원	5,341 천원	↓ 1.4	↑ 4.7
	거세	6,612 "	6,628 "	5,822 "	↓ 0.2	↑ 13.6
한우송아지 (6~7월)	암	2,861 "	2,892 "	2,550 "	↓ 1.1	↑ 12.2
	수	3,392 "	3,365 "	3,051 "	↑ 0.8	↑ 11.2
육우(600kg)		3,241 "	3,176 "	2,958 "	↑ 2.0	↑ 9.6
젖소수송아지(7일령)		122 "	112 "	120 "	↑ 8.9	↑ 1.7
돼지(110kg)		302 "	- "	338 "	-	↓ 10.7
육계(원/kg)		1,063 원	1,174 원	1,276 원	↓ 9.5	↑ 9.9
계란(원/특란10개)		1,265 "	1,072 "	2,158 "	↑ 6.7	↓ 41.4
오리(원/kg)		2,567 "	2,567 "	2,381 "	- 0.0	↑ 7.8

\* 자료 출처 : 전라남도 축산정책과



## 5

## 저비용·고소득 농업기술 정보



## 전남농업기술원, 잎나물용 갯기름나물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

- 향과 품질이 뛰어난 갯기름나물 유기재배 시 농가소득 증대 -

- 전남농업기술원(원장 김성일)은 소비자들로부터 웰빙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약용작물 중 주로 잎나물로 소비가 많은 갯기름나물(식방풍) 고품질 유기재배 기술을 수록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.
- 갯기름나물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감기와 두통, 발한, 해열, 거담, 관절과 근육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리작용으로 뿌리가 한약재로 쓰이고 있다. 현재 전남도 재배면적이 160ha로 전국의 91%이고 잎나물 생산량은 6.5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8%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여수·고흥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.
-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갯기름나물 안정생산을 위해 주요 핵심 재배기술인 △재배 환경, △토양관리, △병해충 방제, △수확 후 관리 및 유통 등을 수록하여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자료로 설명하면서 세부적으로 재배기술을 보완하여 제작했다.



-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박사는 “이 매뉴얼을 통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특화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\* 출처 : 전남농업기술원



## ■ 전남농업기술원, 전국 최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

- 21개 시군, 도내 농업인 3만 6천여 명 교육 실시 -

- 전남농업기술원(원장 김성일)은 1월 3일 장성군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.
-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969년 『겨울농민교육』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49년째를 맞는 연중 최대 규모의 전국 단위 농업인교육으로 한 해 농사의 시작에 앞서 영농계획을 설계하고,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습득하는 자리이다.
- 전남도는 21개 시군 3만 2천여 명이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, 스마트팜,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(PLS)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농정현안 과제와 작목별 신기술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각 시군에서는 가금분야 교육은 평창 동계페럴림픽 폐막 후에 실시하고 가금 외 축산교육은 동계올림픽 개막전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, 자세한 교육일정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.

\* 출처 : 전남농업기술원



## ■ 체리 가지치기 교육 6일부터 시작... 전국 6개 권역 순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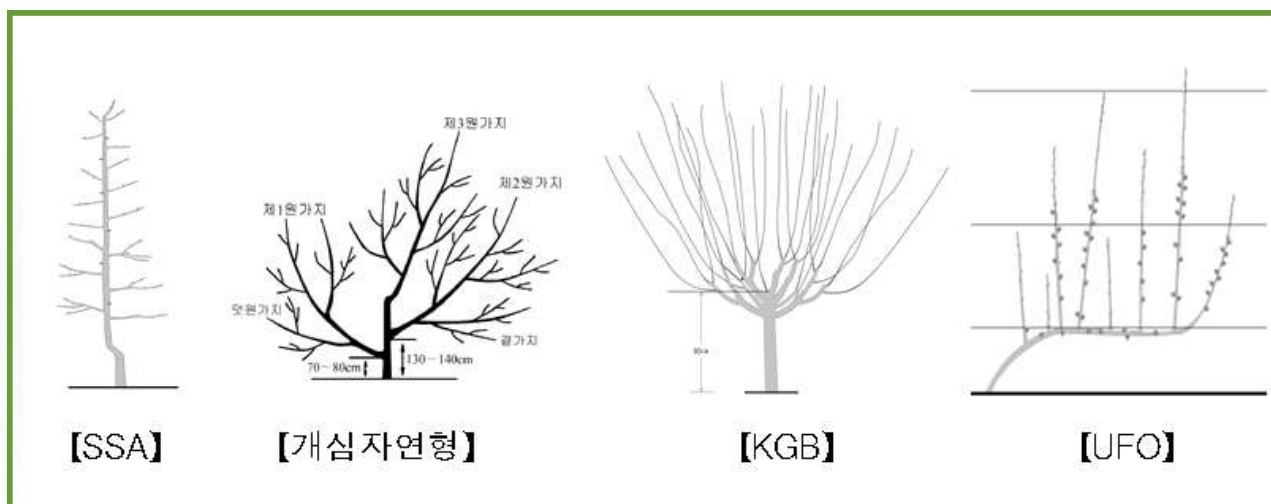
- 농촌진흥청(청장 라승용)은 바람직한 체리 나무모양을 만들기 위한 가지치기(전정) 교육을 1월과 2월 두 달간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실시한다.
- 이번 교육은 1월 6일 경남 거창을 시작으로 13일 경북 문경, 20일 전북 전주, 27일 전남 곡성, 2월 3일 충북 청주, 4일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진행된다.
- 체리 재배농가, 체리 재배를 희망하는 귀농예정자, 체리전문지도 연구회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은 체리기술포럼과 권역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.
- 가지치기 교육에선 체리 나무모양인 주간형, 개심자연형, 케이지비(KGB: Kym Green Bush), 유에프오(UFO: Upright Fruiting Offshoot) 등 다양한 유형이 소개된다. 또한 초기 나무모양 관리 방법에서부터 다 자란 나무의 열매가지 배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.
- 우리나라 체리 재배면적은 2014년 200ha 정도에서 최근 3~4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. 체리 재배 농업인은 다양한 대목을 이용한 나무모양 만들기에 관심이 높으나 대부분이 체리 재배 경험이 적어 이들은 위한 가지치기 교육이 필요하다.
- 체리나무는 생산력이 높은 나무모양을 갖추기가 다른 과수에 비해 어려워 나무를 심을 때부터 바람직한 나무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. 생산성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중요하다.





- 나무모양은 농업인의 경영방식과 재배환경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. 재배규모가 크다면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나무모양이 바람직하다. 재배규모가 작은 경우엔 다소 노동력이 들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나무모양이 소득 향상에 유리하다.
- 국내 체리 생산량은 500kg/10a(외국 1,000kg/10a 이상)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. 하지만 나무를 심은 직후부터 나무모양을 잘 구성하면 결실공백기를 1~2년 단축할 수 있고, 수확량도 100kg/10a 이상 늘릴 수 있다.
- 권역별 가지치기 교육을 받고 싶은 농가는 농촌진흥청 과수과 (☎ 063-238-6733)로 문의하면 된다.
- 농촌진흥청 과수과 남은영 농업연구사는 “최근 KGB·UFO 등 새로운 체리 나무모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각자의 경영방식과 재배환경을 고려하여 나무모양을 결정하고 대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심는 것이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\* 출처 : 농촌진흥청



다양한 체리 나무모양

## ■ 경남농업기술원, 애플망고 적정 생육 적온관리 밝혀

- 수확 후 이듬해 1월말까지 최저온도 5℃ 관리해야 -

- 경남농업기술원(원장 이상대)이 도내 열대과일인 애플망고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겨울철 애플망고 적정 생육 적온관리 개시시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.
- 국민소득 증가 및 웰빙 소비확대와 함께 최근 지자체들의 특화·고소득 작목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열대과일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.
-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.5℃정도 상승했지만 아직 열대과일 재배를 위해서는 난방시설을 갖춘 온실이 필수적이며, 그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과 난방비는 재배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
- 특히 아열대 과수 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망고는 전 세계 50여국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, 국내재배는 1993년에 대만으로부터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'16년 현재 전국에 32.5ha가 재배되고 있는데 전체 경영비 중 50% 이상이 난방비가 차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재배농가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.
- 경남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애플망고 재배농가들의 애로사항인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구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애플망고 적정 생육 적온관리 개시시기에 관한 연구를 했다.



- 결과에 따르면, 애플망고 시설 재배 시 망고를 수확한 이후부터 이듬 해 1월말 까지 최저온도 5℃로 관리하다가 2월 상순부터 6월 중순까지 22~23℃(생육적온)로 관리하면 12월 상순부터 생육 적온으로 관리 한 것에 비해 연료비 25% 절감과 수량이 47% 정도 증수되어 연간 10a당 6백만원의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다.
- 애플망고는 12월말에서 1월 사이에 꽃이 만개해 4개월 후 5~6월경 약 한달 동안 90%의 수확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. 망을 씹어서 과일이 스스로 떨어지면 수확하는 방식의 완숙 망고이기에 당도가 무려 20~23Brix이다.
- 이에 따라 도내 열대과일인 망고 재배현황은 통영·거제·하동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, 재배면적은 2ha, 생산량은 10톤이다.

\* 출처 : 농촌진흥청





## ■ 겨울철 시설 토마토 병 발생 주의하세요

- 주기철 예찰로 병 발생 초기에 신속히 방제해야 -

- 농촌진흥청(청장 라승용)은 겨울철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마토 병의 초기 증상을 제시하고 주기적 포장 예찰을 통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.
-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내부가 20℃ 전후로 유지되나 습도가 높을 경우 곰팡이병이 발생할 수 있다.
- 겨울철 시설하우스의 저온 다습한 환경 조건에서는 잿빛곰팡이병, 잎마름역병과 같은 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쉽다. 또한 지난해 가을에 토마토를 아주심기한 이후 1~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궤양병과 같은 세균성 병도 나타날 수 있다.
- 잿빛곰팡이병은 잎 끝이나 가장자리에 갈색 병반이 생기기 시작해 잎 안쪽 부위로 점차 들어가면서 V자 모양으로 크기가 커진다. 병이 심해지면 병반 상에 회색을 띤 포자가 많이 형성된다.
- 잎마름역병은 잎, 줄기, 과실에 갈색을 띤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병반이 물에 데친 듯한 형태로 나타난다.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병반 상에 곰팡이 포자가 많이 만들어져 하얗게 보이며 주변으로 빠르게 퍼진다.
- 궤양병은 병 발생 초기에 잎 한쪽이 암갈색으로 시들거나 잎맥 사이에 담황색 병반이 반질반질한 모습으로 형성된다. 병이 진전돼 식물체가 심하게 시든 경우 줄기 아랫부분(지제부)을 잘라보면 내부 색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.
-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는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초기 병징을 발견하면 신속히 방제해야 한다. 무엇보다도 병이 발생하기 전에 보온과 환기를 통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시켜 하우스 내부가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관리한다.



- 잿빛곰팡이병과 잎마름역병의 초기 병징이 발견되면 병든 부위를 바로 제거해 포장 내 전염원의 밀도를 낮추고 적용약제를 뿌려야 한다.
- 궤양병의 경우 초기 증상이 나타날 무렵에는 식물체 전신이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. 또한 소독하지 않은 작업도구 등을 통해 건전한 식물체가 2차적으로 감염될 수도 있다.
- 초기 병징이 발견되면 가위나 장갑 등 작업도구를 락스 희석액에 소독해서 사용하고 적용약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처리한다.

\* 출처 : 농촌진흥청



【토마토 잿빛곰팡이병】



【토마토 잎마름역병】

【토마토 궤양병】



## ■ 가금농장 출입 전 소독만 잘해도 세균 크게 억제

- 사람은 공기샤워 · 분무소독... 차는 바퀴 당 10초 이상 소독 -

- 농촌진흥청(청장 라승용)은 농장의 소독시설 평가를 통한 올바른 소독 방법과 해외 우수사례 등을 참고한 효율적인 전실(축사 내부·외부 사이의 간이 공간) 모델을 소개했다.
- 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소독 방법과 축사 전실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.
- 농촌진흥청은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차와 사람, 신발의 소독 방법에 따른 효과를 실험했다.
- 차량은 바퀴 한 부위에 암모늄 희석액을 3초 이상 고압분무 소독한 결과, 세균이 100% 억제됐다. 바퀴 전체 부분의 효과를 위해 바퀴 당 10초 이상 소독할 것을 권한다.
- 사람 소독시설은 공기샤워(에어샤워) 후 구연산 제제의 분무소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, 공기샤워만 했을 때보다 세균 수 억제 효과가 높았다.
- 발판은 암모늄 희석액으로 소독한 직후보다 4시간이 지난 뒤 세균 억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. 따라서 축사 안에서 신는 장화 등은 사용하기 하루 전 미리 소독액에 담가 놓도록 한다.
- 외부의 오염된 공간에서 내부의 깨끗한 공간으로 진입이 쉬울수록 바이러스도 쉽게 들어오며 축사 내부의 오염 확률도 커지게 된다.
- 전실 안에 펜스(울타리)를 설치해 축사 안과 밖을 구분하고 강제적으로 소독을 유도함으로써 축사 안의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.

\* 출처 : 농촌진흥청







## ■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

- 피해 농가에 큰 도움 기대... -

-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 복구비 평균 지원단가를 농약대는 4배, 대파대는 2배 인상해 대폭 현실화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.
- 주요 품목별로는 채소류 농약대가 ha(3천평)당 30만 2천원에서 167만 7천원으로 5.5배, 과수류 농약대가 62만 6천원에서 174만 6천원으로 2.8배 인상됐습니다.
- 또한 엽채류 대파대는 296만 8천원에서 410만 4천원으로 1.4배가 인상되는 등 20개 항목에 대해 평균 3배 이상 인상돼 올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- 이번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은 그동안 전라남도가 정책토론회,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단가 현실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.
- 하지만 아직도 농업시설, 가축 등의 복구비는 농가가 입은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. 실제 농업시설 복구비의 경우 35%만 보조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용자와 자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돼 피해농가 부담이 큼니다.
-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가 입장에서 재해 지원 효과를 체감토록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.

\* 출처 : 전라남도



## ■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·농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

-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('18~'22) 수립 -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영록)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 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『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('18~'22) 종합계획』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2차 5개년('18~'22) 종합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.
- 도시텃밭 분양,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정보, 귀농지원 연계 등 도시농업 및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한 도시농업상담 센터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·운영 할 계획이다.
-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고, 이를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·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·보급 할 계획이다.
-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법·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,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교육기관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도시농업 관리사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등 관련 교육 인프라를 강화 할 계획이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\* 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

## 7

## 전남 시군 농정 동향



### ■ 순천시, 매실전통주 하늘담 개발 출시

- 지역 대표 농산물인 매실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-
- 순천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600년 전통의 순천매실을 사용한 매실 전통주 『하늘담』을 개발하여 출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출시된 하늘담은 지난해 11월 순천시(시장 조충훈)와 순천주조(회장 조병준)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매실을 사용하여 만든 매실전통주로서 착수한지 1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공식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.
- 매실전통주 브랜드 하늘담은 순천(순천만)의 하늘을 담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, 순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순천만 국가정원 내 바람의 언덕을 모티브로 삼아 부착마크 디자인을 완성하였다. 또한 술을 담은 병은 불투명·블랙 코팅을 사용하여 순천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채택하였으며, 용량 500ml에 도수는 16%로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.
- 이번에 개발 출시된 하늘담은 순천시 내 일반음식점 및 순천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, 올 상반기 내에 순천만국가정원 내 남도농특산물관 및 서울 가락물 시장에 입점하여 판매될 계획이다.

\* 출처 : 순천시





## ■ 광양시, 토양검정·유용미생물 공급 서비스 농가로부터 큰 호응

- 지역 대표 농산물인 매실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-

- 광양시가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, 유용미생물비료 공급 서비스로 농업인들에게 경영비 절감은 물론,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원동력이 돼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- 시는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의 실천을 위해 종합검정실과 미생물 비료 생산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.
- 지난해에는 종합검정실 토양검정을 통해 분석 계획량인 3,100점을 초과한 총 3,878점을 분석했으며, 미생물비료는 공급 계획량인 40톤을 초과한 1,190여 농가에 총 46여톤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.
- 올해에도 토양검정은 3,100점, 미생물 비료생산은 고초균과 광합성균, 유산균 등 3종의 미생물을 활용해 4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.
- 또 많은 농업인들이 과학영농시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.
- 토양검정과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기술보급과(☎ 061-797-3560)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시비처방서 발급과 농가당 200L까지 미생물비료를 공급 받을 수 있다.

\* 출처 : 광양시



## ■ 곡성군, 석곡농협 백세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선정

-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쌀로 인정받은 곡성군 석곡농협 백세미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육묘장, 곡물 건조시설, 도정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.
- 그동안 백세미는 전국 최고 품질의 쌀로 인정받았지만 도정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완전미 생산 등 품질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아 이번 사업을 통해 백세미 전용 육묘장에서 공동 생산된 우량 육묘를 계약 재배 농가에 공급하여 품종 혼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곡물건조기 설치로 백세미 농가 수확 후 산물매입 후 즉시 농협 건조기로 이송 적정 온도에서 건조해 품종혼입을 막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.
- 또한 도정시설은 HACCP시설 구축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백세미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특히 이번사업을 통해 육묘부터 재배관리, 건조, 가공까지 전반적인 백세미 생산을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여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일손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\* 출처 : 곡성군





## ■ 보성군, 2018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

- 9일부터 농업인 1,500여명 대상으로 15회 진행 -

- 보성군은 영농기술 실천을 위한 『2018 새해농업인 실용교육』을 9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, 복지회관 등에서 농업인 1,5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.
- 실용교육은 전년도 영농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신기술 보급, 달라지는 농정 시책홍보 등 새해 영농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.
- 친환경 생명농업과 고품질 다수확 실현을 위한 벼농사, 고추재배 기술 등 영농 종합반교육 12회, 4차 산업 혁명과 농업변화, 농업 유용 미생물활용, 농촌 여성을 위한 소규모 창업교육 3회 등 총 15회가 진행된다.
- 또한,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농기술 뿐 아니라 농정방향, 농작업 안전교육, 잔류농약관리제도(PLS) 및 AI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된다.
- 교육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(☎ 061-850-5712) 또는 각 읍면 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.

\* 출처 : 보성군





## ■ 고흥군, 2018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

- 고흥군은 올해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1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.
- 군에 따르면, 2018년 시범사업은 28개 분야에 총사업비 19억 4천 만원을 지원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신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인력육성 분야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등 4개 사업 4개소, 작물환경 분야에 벼 무논점파(직파)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등 6개 사업 11개소, 원예기술 분야에 우량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스템 구축 등 11개 사업 20개소, 축산·곤충 분야에 산업곤충 전문단지 조성 등 6개 사업 7개소, 현장지원 분야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마케팅 지원 1개 사업 4개소 등이다.
- 신청자격은 고흥군 농업인과 농업인단체, 농업법인 등으로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농가에 파급하여 사업 효과를 거양 할 수 있어야 한다.
- 사업 희망농가는 1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별 추진 계획을 상담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- 군 관계자는 “올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비전5000프로젝트 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”며,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시범요인 투입과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”고 말했다.

\* 출처 : 고흥군



## ■ 멕시코, 농·축산업 시장 현황

- 멕시코는 파파야·라임·아보카도 등의 특수작물과 오이·콩·베리류 등의 채소와 과일, 소고기·닭고기 등 다양한 농·축·수산품을 생산하고 있음
- 최근 멕시코 내에서 쌀을 이용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쌀 수요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옥수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, 옥수수는 동물의 사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, 사료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옥수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밀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토르티야를 만들 때 사용되며, 빵·과자 등 다양한 식재료에 사용됨
- 멕시코 내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증가하고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
- 최근 멕시코 내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축산품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고, 소고기 소비량은 2014, 2015년 감소 후 다시 2016년 소비량이 소폭 상승했는데, 이는 멕시코 내 비만인구가 증가하며 사회문제가 되자 소고기보다는 대체재인 어패류, 닭고기 등의 소비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됨
- 2017년 멕시코·캐나다·미국 3국은 약 20년간 이어져온 NAFTA 협상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임



- 미국 측은 자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내 수확 철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, 이 조항이 발효된다면 미국 조지아 주의 딸기 수확 철에는 멕시코는 딸기를 수출할 수 없거나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이에 멕시코 정부는 이번 제안이 NAFTA 협상 및 WTO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비판함
- 미국 밀연합회(US Wheat)는 멕시코가 미국산 밀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NAFTA 폐기, 관세 부과 등 협상 개정 시 대멕시코 밀 수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
- 수출 곡물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멕시코 밀 수출이 감소한다면 미국 농부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미국 내 밀 가격 또한 하락하여 전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임
- NAFTA가 발효된 1995년 미국의 밀 수출량은 1억 4,000만달러였으나 2016년 5억 3,400만달러까지 수출량이 증가했고, 현지 언론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농축산업계는 NAFTA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백악관을 압박 중이라고 함
- 현재 NAFTA 협상은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, 3국 간 이견이 커 2018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협상시한을 연장한 바 있으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NAFTA 협상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함
- 가능성은 낮지만 NAFTA 협상이 파기될 경우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, 멕시코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되던 농·축·수산물을 아르헨티나·브라질 등에서 수입할 것으로 예상됨

\* 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





## ■ 식품시장에서의 친환경 포장지 사용 확대

- 최근 식품관련 제조업체는 환경보존과 이에 관한 시장에 움직임에 따라 친환경포장제의 개발을 하고 있음
-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환경 보존에 두 화두는 농업 식품 산업에 포장물 줄여야 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
  - 대형유통업체인 벨기에의 메트로는 현재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장지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하거나 고려해야 되는 제품의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함
- 연간 6%의 성장률을 보이며 사용되고 있는 골판지 포장은 농업 식품 산업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플라스틱은 점점 더 적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 - 하지만 시장에서는 식품에 안정성이 보장하는 새로운 친환경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
- 농업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퇴비화가 가능한 생분해성 비닐봉지와 시민들의 생태학 경향을 높이는 법규 사이에서, 바이오 플라스틱은 농식품 포장용 플라스틱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
- 생분해 바이오폴리에스테르 트레이는 과일과 채소를 포장하기 위한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이 포장 유형은 농업 폐기물로 만들어지므로 매우 편리하고 환경적임
  - 이는 아직 연구개발 중이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프랑스 포장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

\* 출처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



## ■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('18. 1. 8. 시카고 선물거래소)

□ 대두 선물 가격, 전일 대비 0.2% 상승해 3주 만에 최고치 기록

○ 밀 선물시장 상황(▼0.8%)

-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.8% 하락했다. 연질 붉은 겨울 밀 선물은 기술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. 또한, 건조한 날씨와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. 미 농무부(USDA)는 주간 13만 1,000톤의 밀을 수출했다고 밝혔으며, 예측치는 22만 5,000톤에서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

○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(▲0.1%)

-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.1% 상승했다. 옥수수 선물은 기술적인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. 미 농무부(USDA)는 주간 옥수수 수출이 10만 1,200톤으로 예측치인 60만에서 100만보다 낮았다고 밝혔다.

○ 대두 선물시장 상황(▲0.2%)

- 대두 선물은 전일 대비 0.2% 상승해 3주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. 관계자들은 미국 수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남미의 기상 전망에 집중하고 있다. 옥수수 선물은 금요일에 거래가 증가했다. 미 농무부(USDA)는 옥수수 수출이 최근 10만 1,200톤으로 시장 예측치가 60만톤에서 100만톤 보다 낮았다.



\* 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

## 9

##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



### 봄 파종용 보리·밀 종자 신청하세요

- 영양보리 30톤 · 조경밀 10톤 -

-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(원장 오병석)은 조사료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춘파용 보리·밀 종자를 공급하고 있다.
- 올봄에 보리·밀을 파종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(농업인상담소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.
- 공급할 물량은 영양보리(미소독) 30톤과 조경밀(소독) 10톤으로 모두 봄 파종이 가능한 품종이다.
- 신청한 종자는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.
- 기타 보급종 신청·공급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보리·밀 품종별 특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(054-912-0187)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([www.seee.go.kr](http://www.seee.go.kr))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

\* 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



## ■ 논 타작물 재배 2월 말까지 신청하세요

- 전남도, ha당 조사료 400만원 등 작물별 차등 지원 -
- 전라남도가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.
-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올해 전남의 논 다른 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전국 5만ha의 약 21%인 1만 698ha로, 세부시행지침을 확정, 시군에 통보했습니다.
- 지원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0a(300평) 이상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입니다.
- 지원 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 면적 확대 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고추·무·배추·인삼·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제외됩니다.
- 농지의 경우도 이미 다른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, 정부 매입비축농지, 농진청 시범사업,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은 제외될 예정입니다.
- ha(3천평)당 지원 단가는 평균 340만원으로 사료작물 400만원, 일반작물은 340만원, 콩·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원 등입니다. 벼와의 소득차와 영농 편이성을 감안해 작물별로 차등 지원됩니다.
-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바라는 농가는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.

\* 출처 : 전라남도

## ■ 2018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선발

- 약용작물·산업곤충반 2과정 60명 모집 -

- 전남농업기술원(원장 김성일)은 글로벌 경영 역량을 갖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2018년도 제14기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.
- 교육과정은 약용작물(30명), 산업곤충반(30명) 총 2개 과정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각 과정별 30일간 운영되며 인원은 총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.
- 약용작물과정은 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자 증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재배·가공·수확 후 관리와 약초 관련 전문교육으로 운영되며,
- 곤충산업과정은 2017. 7. 1일자로 『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, 곤충사육 농가들의 창업 준비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경영전략과 마케팅 교육, 유용곤충 대량생산기술 개발 등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-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는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,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1월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.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2일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([www.jares.go.kr](http://www.jares.go.kr)),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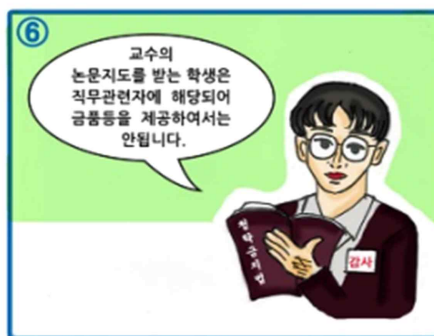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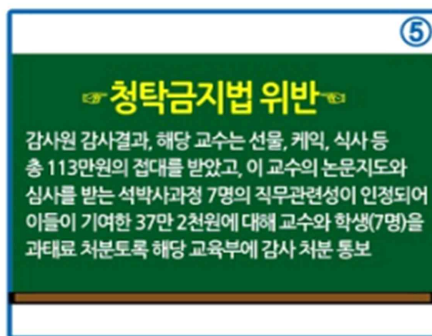
\* 출처 : 전남농업기술원



## 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

### 청탁금지법 위반사례

☞ 제자들로부터 선물 및 식사접대 사례의 감사원 통보



청탁금지법! 이젠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

- coming soon -

\* 출처 : 전라남도





167호

## 주간 전남농업정보

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

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
Tel 061-330-2593 Fax 061-335-4199